

일시적 경관의 경향에 관한 연구

주소희* ·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오늘날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에 대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주요 도시 사업의 붕괴, 도시에 집중된 인구밀도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기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 사용은 현대 도시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우리 삶과 도시 구조에 급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가 중심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는 시민들의 실제 삶과 괴리를 만들어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유휴공간을 만들었다.

최근 이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달리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것을 일시적 어바니즘(Temporary Urbanism)이라 한다. 도시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만드는 공간은 대부분 조경분야에서 흔히 다루는 정원, 공원, 광장의 형태이며, 이는 일시적 어바니즘과 조경분야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조경적 시도를 일컬어 일시적 경관(Temporary Landscape)이라 한다(최혜미, 2012).

일시적 경관은 비교적 성숙한 공공공원 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파킹데이(Park(ing) Day)', '팝업 카페(Pop-up Cafe)', 영국의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 등이 있다(Lydon, 2012). 국내에서도 이런 세계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 '게릴라 가드닝', '임시정원 전시회',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시적 경관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사례들은 도시 공간 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잠재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나,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관련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시적 경관의 개념과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외 일시적 경관 연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시적 경관은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기존 목적과 달리 임시,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Haydn and Teme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일정 규모의 공간을 적극적인 물리적 개입을 통해 일시적인 기간 동안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위주로 하며, 엑스포, 박람회와 같은 이벤트 목적이나 단순 설치 예술을 통한 공간 활용 사례는 제외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을 통하여 일시적 경관의 개념과 흐름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외 대표적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일시적 경관의 경향성을 도출하여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일시적 경관의 이해

1. 개념 및 용어의 정리

1) 일시적 어바니즘

일시적 어바니즘은 사용되지 않는 소규모 도시 공간을 소자본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느슨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추구하며, 보통 전술적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 게릴라 어바니즘(Guerilla Urbanism), 팝업 어바니즘(Pop-up Urbanism)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Lydon, 2012).

2) 일시적 경관

초기 일시적 경관의 연구는 이벤트적 속성에 초점을 맞춰졌다. 조경진과 김수연(1998)은 '일시적 조경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설치되든가, 혹은 특정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조경작품을 말하였다. 전태우(2002)는 이를 '가설조경(假設造景)'이라 명명하고, 외부공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이 용이한 소재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조경이라 정의하였다. 송지현(2003)은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필요한 이벤트 공간으로서 일시적 경관을 바라보았다.

반면에 최혜미(2012)는 '일시적 환경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임시적 방법으로 장기

적 계획 사이에 침투하여 중간단계에서의 단기간 사용 및 활용이라 하였다. 이는 앞선 개념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일시적 조경을 바라본 것으로, 도시 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일시적 조경의 잠재력을 의미하고 있다.

2. 일시적 경관의 흐름

넓은 의미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은 도시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일시적 경관은 근대의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서 도시가 완성되고 난 이후의 움직임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 계획, 설계가 가지는 단점에 대한 대안적인 가능성으로서 일시적 경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조현지,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초기의 일시적 경관 연출로 볼 수 있는 사례는 1914년 'Play Street 프로그램', 1973년 '게릴라 가드닝'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일시적 경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례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파킹데이', 2010년 '어반 오차드', 2011년 '팝업 카페'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독일의 '72 Hour Urban Action', 이탈리아의 '공공디자인 페스티벌'과 같이 실시간 공모전 형태로도 일어나고 있다.

IV. 사례 분석 및 고찰

일시적 경관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유럽, 한국에서의 일시적 경관 연출 사례를 각각 5개씩 추려 총 15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1. 미국

미국의 일시적 경관 연출의 시초는 1914년에 시작한 'Play

Street 프로그램'이다.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 일시적으로 점유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부 시장이나 비만 아이를 위한 놀이터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

게릴라 가드닝은 1973년 뉴욕시의 운동가들이 씨앗, 물, 비료를 버려진 공터에 불법적으로 뿌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필요한 자금이나 식물, 인력은 대부분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이용해 만든 불법적인 정원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뉴욕시 공원녹지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일시적 행동이 정부/지자체에 승인을 받은 오랜 기간의 변화로 바뀔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이다.

미국은 주차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 사례는 파킹데이, Parklets, 팝업카페로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발전되었다. 파킹데이의 경우, 참가자들은 1년에 하루 동안 자비로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빌려 인터넷을 통해 공유된 조성 매뉴얼을 따라 공공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이를 발전시켜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Parklets이다. 사용하지 않는 아스팔트를 공공공간화 시키는 이 프로젝트의 운영은 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비용은 참가비를 통해 충당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다시 뉴욕의 팝업 카페에 영향을 주었다. 팝업 카페는 뉴욕 4개 구역의 주차 노선을 공공공간으로 만든 프로젝트로 뉴욕시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 관리비를 인근 상점에서 부담하였으며, 이러한 상점과 연계한 주차공간의 공공공간화는 상점의 수익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2. 유럽

독일에서는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경관 연출이 많았

표 1. 미국의 일시적 경관 사례 분석

구분	Play Street 프로그램	게릴라 가드닝	파킹데이	Parklets	팝업 카페
위치	미국 뉴욕	전 세계 30여 개국	전 세계 35개국 162개 도시 (2011)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뉴욕
시작	1914년	1973년	2005년 11월 16일	2009년	2011년
설치 기간	1일 (2달 또는 6주에 한 번)	-	1일 (9월 셋째 주 금요일)	-	6개월 (2011.04.15~2011.10.14)
계획주체	뉴욕시	지역 운동가, 지역 주민	Rebar, 지역 주민, 사회운동가	샌프란시스코시, 공공공사 도시개발부, 지방교통관리국, Rebar	뉴욕시, 지역상인, 지역 전문가
관련 지침	참가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디자인 매뉴얼	디자인 매뉴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성과보고서
주민참여	계획 및 프로그램 참여	계획·제작·관리 등 적극적 참여	계획·제작 시 참여	관리 시 참여	-

으며 사례로는 임시정원과 72 Hour Urban Action이 있다. 임시정원은 젊은 조경가들이 베를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재현하기 위해 시작한 실험적인 도시정원 설치예술프로젝트이다. 설치 장소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4일 동안의 설치 과정을 통해 정원으로 재탄생된다. 72 Hour Urban Action은 세계 첫 번째 실시간 건축 공모전으로, 10개 팀이 3일 밤낮에 걸쳐 공공공간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료하는 작업이다. 각각의 팀은 건축가, 학생, 디자이너, 예술가 등이 모여 구성된다. 작품의 형태는 단순 벤치부터 가건물, 예술작품까지 다양하며, 이들 중 상을 받은 작품은 영구히 보존된다.

영국의 사례는 달스톤 밀과 어반 오차드로 모두 도시 텃밭을 활용한 사례이다. 달스톤 밀은 런던의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시농업 프로젝트이다. 폐철로 부지를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밀 재배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와 동시에 농산물 판매와 같은 상업적 부분에도 도움을 주었다. 어반 오차드 역시 도시농업 프로젝트로 조경가, 시민단체, 지역커뮤니티,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런던의 한 유희공간을 과수원으로 만들었다. 사용

된 재료와 식물은 시민들에 의해 재활용하거나 기부되었다. 이는 일시적 경관이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로잔 자텡(Lausanne Jadin)은 3~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도심 속 정원 조성 예술 축제이다. 2009년 로잔 자텡은 2009년 6월 20일부터 10월 24일에 걸쳐 '아래, 그리고 위의 정원(Gardens over and under: Jardins dessus dessous)'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 해 전 국제 공모전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조경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제 정원으로 조성된다.

3. 한국

한국의 일시적 경관은 미국과 유럽 사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우선 전 세계적인 도시텃밭의 페러다임의 흐름에 따른 사례로 문래 도시텃밭과 마르쉐@가 있다.

문래 도시텃밭은 서울시 여성환경연대의 도시텃밭 운동 중 하나로 문래동 철공소 옥상 일부를 활용하였다. 철공소 주인과 텃밭 운영자들의 협동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이 증

표 2. 유럽의 일시적 경관 사례 분석

구분	독일		영국		스위스
	임시정원	72 Hour Urban Action	달스톤 밀	어반 오차드	로잔 자텡
위치	독일 베를린	독일 슈투트가르트, 덴마크 로스킬레 등	영국 런던	영국 런던	스위스 로잔
시작	1997년	2010년 9월 25일	2009년 6월	2010년 6월	1997년
설치 기간	4일간 (7월 첫째 주)	3일	9개월 (2009.06~2010.03)	3개월 (2010.06.19~2010.09.19)	4개월
계획주체	조경가	전문가, 학생, 예술가	런던 헤크니시, 건축가, 예술가, 지역 주민	조경가,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 기타 전문가	로잔시, 조경가, 시민
관련 지침	-	공모전 가이드라인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프로젝트 일환	기부 순환시스템 (Make and Take)	공모전 가이드라인
주민참여	계획·제작 시 참여	계획·제작 시 참여	계획·관리 시 참여	제작 및 프로그램 계획 시 참여	계획·제작 시 참여

표 3. 한국의 일시적 경관 사례 분석

구분	문래 도시텃밭	임시정원 전시회	마르쉐@	게릴라 가드닝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아르코미술관	-	서울시 내 10여개 대상지
시작	2011년 5월	2008년	2012년 10월	2012년	2012년 11월
설치 기간	-	2일	1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	1개월
계획주체	서울시 여성환경연대, 지역 작가, 철공소 주인, 지역 주민, 조경가	학생, 교수	농부, 요리사, 예술가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역 주민	서울시, 전문가, 학생, 시민
관련 지침	-	디자인 주제 설정	-	-	공모전 가이드라인 조직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계획·제작·관리 시 참여	-	-	계획·제작·관리 등 적극적 참여	계획·제작 시 일부 참여

진되고,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와의 계약 문제와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갈등을 빚어 텃밭의 절반이 철거되기도 하였다.

마르쉐@는 이와 연계한 사례로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벼룩시장의 형태로 서울 혜화동 아르코 미술관 앞 공개 공지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근교의 작은 텃밭을 지닌 40여 팀의 농부와 요리사, 예술가가 협력하고 있고, 이중에는 앞서 살펴 본 문래 도시텃밭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의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례들로 임시정원 전시회와 게릴라 가드닝,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가 있다.

임시정원 전시회는 독일의 임시정원을 모티브 삼아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에서 개최한 대학생 프로젝트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시기는 2012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이고, '울전이라 쓰고, 무릉이라 말한다'는 주제 하에 9개의 작은 임시 정원을 선보였다.

한국에서의 게릴라 가드닝은 2012년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참여 축제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부천시의 '시민과 함께 하는 게릴라 가드닝-도시농부원정대', 인천환경공단의 '화평동 냉면거리 게릴라 가드닝'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사례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72 Hour Urban Action을 벤치마킹하였다. 공모전 형식으로 주제에 적합한 계획을 해야 하며, 작업비는 팀별 1,000만 원씩 차지구 예산에서 보조된다. 2013년 행사부터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 방식을 개선하였다.

4. 고찰

미국, 유럽, 한국의 총 15개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과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계획주체에 관한 것이다. 일시적 경관의 계획주체는 크게 정부/지자체, 전문가, 시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몇 가지 특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두세 가지의 요소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향식 접근형태가 많은 편이다.

두 번째는, 계획주체에 따라 계획 지침의 강제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비교적 정부의 관여가 높은 경우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주의 사항이 명시되었다. 민간 주도의 사례는 별다른 제재 사항 없이 굉장히 자유로우며,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민들이 직접 설계부터 관리까지 참여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

고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계획에도 참여하여 저소득층이나 비만과 같은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마지막은 인터넷을 통한 일시적 경관의 공유이다. SNS를 통해 활동을 알리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시적 경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 세계적 운동으로 전파하는 원동력이 된다.

V. 결론

일시적 경관은 현대 도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도시 공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 방안이며, 세계적 흐름이다. 국내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발적이고, 시민 주도의 해외 사례와는 달리 국내 사례들은 정부/지자체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제재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시적 경관의 개념과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경향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일시적 경관의 개선점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이 연구를 기초로 일시적 경관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송지현(2003) 현대도시의 이벤트 공간에 관한 연구 -설치기법적 특성의 도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전우태(2002) 우리나라 가설조경(Temporary Landscape)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의 업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조경진, 김수연(1998) 시간, 이벤트, 그리고 조경. 환경과 조경 (1998년 8월).
4. 조현지(2013) 협력적 디자인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방안 연구: 용산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최혜미(2012) 일시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시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 -홍대북합역사 개발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Bishop, Peter and Lesley Williams(2012) The Temporary City. London: Routledge.
7. Haydn, Florian and Rober Temel(2006) Temporary Urban Spaces: Concepts for the Use of City Spaces. Basel, Boston: Birkhauser.
8. Lydon, Mike(2012) Tactical Urbanism 2: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New York: Street Plans.
9. <http://sfpavementtoparks.sfplanning.org>
10. <http://www.guerillagardening.org>
11. <http://www.nyc.gov/dot/popupcafe>
12. <http://www.parkingday.org>
13. <http://www.temporaeregaerten.de>
14. <http://www.transalt.org/issues/pedestrian/playstreet/resources>
15. <http://www.72hoururbanaction.com>